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찬양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우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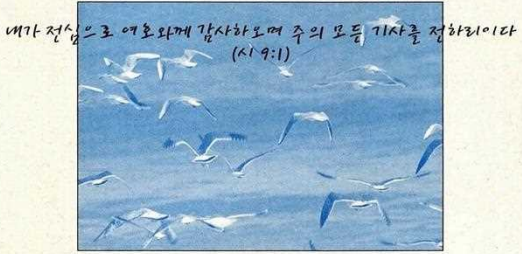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회
충원교회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김성관 편집인:노광현 편집국장:이형수



2001년도 제5차 학습세례식

10월 28일(다음주일), 천양예배시간에 본당에서

2001년도 제5차 학습세례식이 10월 28일(다음주일) 천양예배시간에 본당에서 배풀어진다. 학습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절차를 이수해야 하는데, 해당자들은 이점을 유념해서 준비하시기 바란다. 학습세례를 위한 공부시간과 장소는 아래의 표와 같다.

2001년도 제5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10월 21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이준성 목사)	교육관 407호	세례관? (김병태 목사)	교육관 307호	유아세례관? (이홍성 목사)
	2교시 16:00~16:50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10월 28일 (주일)	천양예배		성인 학습 세례식 (저녁 천양예배, 본당)		유 아 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릴홀)	

금주의 교구 양성훈련 - 23일(화) 8 ~ 11교구 / 25일(목) 9 ~ 12교구

지난 수요일에 메시지

왕 앞에 선 다니엘 (단 5:13)

범살상은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덕분에 세상의 권력을 얻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되자마자 육체의 쾌락을 추구했다. "범살상 왕이 그 국민 일천 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고 그 일천 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15절). 세상 권력에 취하고 육체의 쾌락에 취한 그는 극도로 느부갓네살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서슴없이 저질렀다. "범살상왕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물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국민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물을 가져오며 왕이 그 국민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들이 그것으로 마시니라"(23절). 그리고 그의 타락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24절).

그런데 갑자기 잔치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해버렸다. 범살상이 갑자기 망연자실하게 되었다. 그가 두려움에 빠졌다. "이제 왕의 출가던 빛이 번하고 그 생기가 번민하여 불타리라 마리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니라"(26절). 그것은 그가 술에 취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사람들에게 의해 버려진 일 때문도 아니었다. "그 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속대 맞은편 문밖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25절). 결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일이었다. 더구나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이 다 불러왔으나 읽지 못했고, 해석하지 못한 까닭에 범살상의 번민은 커져가만 한 했으며, 그 두려움은 잔치자의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번졌다. "때에 왕의 박사기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였지라. 그러므로 범살상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낮이 번하고 국민들도 다 놀라니라"(29절).

다니엘이 태후의 입에서 거론되었다. 그녀는 다니엘의 과거를 알고 있었다(11,12절). 그녀가 다니엘에 대해서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추천으로 다니엘은 범살상 왕의 앞에 서게 되었다. 하나님 없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가진 권위자 앞에 서게 되었다. 그에게 선택이 주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신성한 중언이 되든지, 아니면 왕의 비위를 맞추는 자가 되든지! 범살상이 이렇게 물었다. "마가... 그 다니엘이라"(13절). "그 다니엘이 누구인가?" 그 다니엘이란 범살상의 아버지인 느부갓네살의 무릎을 꿇을 하나님을 향해 절해 만들고 그 일로써 찬양하게 만들었던 하나님께 깨끗한 그릇을 의하는 것이었다(34,37절).

범살상이 다니엘에게 그가 금과를 해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조건을 내걸었다(14절~16절).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순간에 처해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인지 생각해 보라! 다니엘에게 언제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뿐이었다. 그래서 그에게 선택되어 급급은 중요하지 않았다(17절). 그래서 다니엘은 정직하고 의연했으며 두려움조차 없었다. 그가 정직하게 말했다. "왕이여 지혜로 높은신 하나님은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제1교육관 시설 개보수 공사에 따른 활용 방안

2001년 10월 17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공사

- 제1교육관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개보수 공사에 따른 활용방안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제1교육관을 활용하는 해당 부서들은 아래의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 개보수 공사 계획
- ① 범위: 제1교육관 전체(층~7층)
 - ② 기간: 2001. 10. 17 ~ 2002. 6. 30.
 - ③ 일정: 각 층별로 단계적으로 하되 7층에서부터 시작
 - ④ 1차 공사: 5층, 6층, 7층(2001. 10. 17 ~ 12. 30)
- 공사 계획에 따른 협조 사항
- ① 제1차 공사 기간 동안 제1교육관 5층에서 7층까지 사용하는 부서들은 임시 사용처 숙지
 - ② 각 부서의 물품들 중에서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제1교육관 지하 2층 창고에 임시 보관
 - ③ 주일 오전 제2교육관 코이노니아홀은 기획위원회 하락일이 임의로 사용되지 말 것
- 제1교육관 공사에 따른 임시 장소 변경
- ① 제1교육관 6,7층 사용부서는 10월21일부터, 5층 사용부서는 10월28일부터 사용할 것

제1교육관 공사에 따른 임시 장소 변경					
	08:30-09:00	08:30-11:00	11:00-12:30	12:30-13:30	13:30-15:00
목자관 지하2층		중등2부 (예배, 분반공부)	외국인 선교부 (CIS팀 집회)		
목자관 지하3층	중등2부 (교사모임)	중등2부 (분반공부)			
제2교육관 2층 203호	중등3부 (교사모임)	중등3부 (예배)			
제2교육관 1층 코이노니아홀		중등4부 (분반공부)	소년부 (분반공부)		청년2부 (GBS)
제1교육관 4층 414호				청년2부 (집회)	
본당 지하 1층 베다니홀			외국인 선교부 (몽골팀 집회)		

위험을 주셨고...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하여 교만을 행하므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범살상이며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업을 왕의 일로 거저가... 그 뜻을 해석하는데 메네는 하나님은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사다 함이요 메네는 왕이 저절에 따라서 부복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이 준 바 되었다 함이니라"(18~28절). 다니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결코 거짓 중언의 노릇을 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대우하지 않는 성결한 동료였다. 그러나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비겁한가? 조금의 이익을 위해, 또는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구차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얼마나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사는가?

때때로 하나님의 신성한 종들은 세상의 권세자 앞에 서기도 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들은 언제나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였다. 나단! 그는 팔레스탄을 정복한 최고의 권위자도 왕이었던 다윗의 죄를 정죄했다(삼하 12:7). 마가! 그는 아람과 이호사밧의 기분을 맞추는 모든 선지자들의 아첨이 쏟아질 때(창상 22:11,12)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말하였다(창상 22:19~23). 비록 잘못 맞고 죽을 간디며 고생의 피와 물을 마시게 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진리를 감싸쳐 만들지는 않았다(창상 22:24,27). 언제나 그렇듯이 신성한 믿음의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법이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세상의 권세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한번 생각해 보라! 만일 주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종인 될 수 있었는가?

주께서 세상에 출도하셨고 세상의 권세에 끌려다니는 인생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앞에 거머인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 세상의 권력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 세상의 부요함과 유혹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오직 주만 바라는 자들이요, 주 날개 밑에 깃들이는 자들이며, 소망이 세상에 참내 전원을 향해 날아오르는 자들이나.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살든지 죽든지 그 중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에 포로가 된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두려움, 그들의 말씀이 두려우며, 죄를 사하시고 배우시는 성령의 불같은 가운데 격렬하게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라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정경을 밝히사 하느니라"(사 26:7). "영 곧의 모든 백성이 나를 알았더라. 그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으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이키지 아니하니라 내게 모든 무릎이 굽고 모든 혀가 맹약하기를 하였고"(사 45:22,23).

God made us

(Psalm 139:14)

“I will give thanks to You, for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Wonderful are Your works, And my soul knows it very well.”

In today's Bible verse David emphasizes that we should praise the Lord for how “fearfully and wonderfully” He has made us. God is the Creator of all things. But how has He made us? Often times we speak of being His children, but we don't understand or appreciate how we are made. Let's think about it.

First of all, we are made near to God by the blood of Christ. Ephesians 2:13 tells us, “But now in Christ Jesus you who formerly were far off have been brought near by the blood of Christ.” Because of Christ's blood we are close to God. We must remember that it is Jesus' blood that makes us near to God. Without Christ unbelievers are without God. They are faraway from Him. Our sinful nature makes us really bad, “And although you were formerly alienated and hostile in mind, engaged in evil deeds, yet He has now reconciled you in His fleshly body through death, in order to present you before Him holy and blameless and beyond reproach” (Col. 1:21&22). Isn't that wonderful? We are actually enemies of God because of our evil actions, but through Christ's death we are made right. He makes us holy and clean, so that we can glorify and praise Him. God is righteous. Only those who are holy, blameless, and beyond reproach can worship Him. The blood of Jesus is so powerful that it enables us to worship God. What's even more powerful is that Christ's life saves us, “For if while we were enemies we were reconciled to God through the death of His son, much more,

having been reconciled, we shall be saved by His life” (Rm. 5:10). In other words, God has made us by the blood of Christ so that we can be near to Him eternally.

In Christ, we not only become close to God, but we become heirs according to the hope of eternal life (Tit. 3:7). Do you believe it? There

excited? What in this world could depress you when you have such wonderful truth?

God has also made us partakers of Christ. Listen to the words of Hebrews 3:14, “For we have become partakers of Christ, if we hold fast the beginning of our assurance firm until the end.” Amen!

Christ's divine nature within us makes us eternal kings and priests. Revelation 1:5-6 announces, “and from Jesus Christ, the faithful witness, the firstborn of the dead, and the ruler of the kings of the earth. To Him who loves us and released us from our sins by His blood—and He has made us to be a kingdom, priests to His God and Father—to Him be the glory and the dominion forever and ever. Amen.” We shall minister to God forever as kings and priests. “Blessed and holy is the one who has a part in the first resurrection; over these the second death has no power, but they will be priests of God and of Christ and will reign with Him for a thousand years” (Rv. 20:6). Jesus Christ has positioned us in the present as a kingdom and priests before God, and gives us a promise of reigning on the earth in the future, “You have made them to be a kingdom and priests to our God; and they will reign upon the earth” (Rv. 5:10).

How did God make you? Through the blood of Christ, He has made you a heir, divine partaker, king, and priest. What a promotion from the lowest position of sinner. Hold on steadfastly to your faith from its beginning to its consummation and you will be the most honorable noble. There is no depression and death as a king and priest. How can you explain this amazing transformation in earthy terms?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Amen! As you entered into His house to worship, I pray His Word has touched your heart. Hold on to your faith until the end. God has made you wonderfully. 

How did God make you?

*Through the blood of Christ, He has made you a heir,
divine partaker, king, and priest.*

What a promotion

*from the lowest position of sinner. Hold on steadfastly to
your faith from its beginning
to its consummation and you will be the most honorable
noble. There is no depression and death as a king and
priest. How can*

*you explain this amazing transformation in earthy
terms?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Amen!*

are a lot times when we try to be good Christians, good human beings, but our efforts are in vain. We are heirs of God because of His grace alone. Paul tells us, “and if children, heirs also, heirs of God and fellow heirs with Christ, if indeed we suffer with Him so that we may also be glorified with Him” (Rm. 8:17). As God's heirs we receive “an inheritance which is imperishable and undefiled and will not fade away, reserved in heaven for you” (1 Pet. 1:4). Isn't that great? God made us like that. If you really understand, isn't your heart burning with joy and praise for our Lord? Aren't you

This wonderful, precious promise God has given to us. Christ's divine power has granted to us everything pertaining to life and godliness. Because of it we can join Christ's divine nature, “For by these He has granted to us His precious and magnificent promises, so that by them you may become partakers of the divine nature, having escaped the corruption that is in the world by lust” (2 Pet. 1:4). God has made us divine. Who can fully understand how wonderful and great a blessing we have in Christ? Some day it is going to be made clear to us when we enter the gates of heaven.



김성곤 목사

주께서 나를 지으심

(시 139:14)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나의 행사가 기이함을 네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죄악된 인생을 새롭게 지으시는 분

오늘 본문에서 다했은 우리를 “신묘 막측”(fearfully and wonderfully)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자녀 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막상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거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지으심

무엇보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하여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지도록 새롭게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은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 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만든 것이 바로 ‘예수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그 자신을 정말 악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천에 악한 행사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해 지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복케 하시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골 1:21-22).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악한 행위들로 인하여 사실상 하나님의 원수이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이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분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 받을 것이 없는 자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매우 능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합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롬 5:10).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창조하셔서 자신과 영원히 가까워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후자로 새롭게 지으심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새롭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자신의 후자로, 신성에 참여하는 자로, 그리고 왕과 제사장으로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죄인의 자리에서 얼마나 높아진 것입니까?

그러므로 시작부터 끝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꼭 붙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명예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에게는 낙심과 죽음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어떤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뿐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따라 그의 후사가 되었습니다(딤후 3:7).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많은 순간 선한 그리스도인, 또는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고도 헛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롬 8:17). 하나님의 후사로서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곧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을 물려받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만약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기쁨과 찬양으로 불타오를 것입니다. 혼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진리가 있을 때 세상의 그 누가 여러분을 낙담케 하겠습니까?

신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롭게 지으심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참예한 자로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은 말합니다. “우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새롭게 지으심

우리와 함께 하는 그리스도의 신성은 우리를 영원한 왕들과 제사장들로 새롭게 지으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5-6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인 소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왕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영원토록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계 20:6).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세우시고 미래에 이 땅을 다스릴 것을 약속하십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라”(계 5:10).

영원히 불침야야 할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새롭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자신의 후자로, 신성에 참여하는 자로, 그리고 왕과 제사장으로서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죄인의 자리에서 얼마나 높아진 것입니까?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꼭 붙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명예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에게는 낙심과 죽음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어떤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주께서 성리하신 이일에 예배하러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집에 나온 여러분들, 제가 기도하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기를 빕니다. 끝날까지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놀라게 지으셨습니다. ■

아프리카 R국 이야기-세

권 요 셴 (평생단 단기선교사)

그렇게 나눔의 권태기가 찾아왔을 즈음, 시골에 있는 오마르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오마르의 집은 제가 평소 다니던 지방보다도 더 폐쇄적이고 더 깊은 곳에 있었고, 매우 폐쇄적이었습니다. 전 마을이 한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마을 사람 모두가 나이지리아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로 친척들끼리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가족이라고 소개했지만, 우리나라 개념에서 오마르의 전체 가족은 오마르까지 포함해서 형제·자매만 26명이었습니. 마을 전체가 강한 이슬람으로 뭉쳐 있었습니다. 교회는 물론 없었거요. 특히 오마르의 가족은 '파키르'라고 하는 이슬람 종교 지도자의 집과 친했습니다. 오마르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소개해 준 '압둘라호프'라는 청년도 '파키르'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오마르의 집에서 지내던 어느 날, 청년들이 '압둘라호프'의 집에 모여들어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마르는 습관적으로 제가 가르쳐준 복음성가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오마르를 쏘아보며 무슨 노래냐고 물었습니다. 오마르는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노래'라고 대답했다가 아차 싶었는지 누워있던 자세를 바로 잡고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교회를 다녔다는 게 아니고, 그저 요새에 따라서 교회에 가 봤는데, 크리스천들은 다 도둑놈들이더구요."



알함 거문에 앉았는 형제 가족압둘라호프

이 아니었다 생각됩니다. 이슬람보다 오히려 힌두교에 관심이 많았던 압둘라호프는 예수, 특히 예수님의 신유사역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런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이야기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 이후로 오마르는 오히려 미안한 듯 성경공부에 열심을 보였습니다.

침로 돌아온 후, 한 청년이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놀라게도 그는 오마르의 고향 친구인 압둘라호프였습니다.

세계관 ⑤

왜 올바른 세계관을 갖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올바른 세계관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다음과 같은 단어에서 짐작할 수 있다. 왜곡, 뒤돌림, 어긋남, 빗나감, 꺾은, 뒤바뀐, 잘못된, 악한 등. 이러한 단어를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정상적인 것들이 아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있는 세상에서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심지어 온통 그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조금이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라면 멀리 볼 필요 없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런 단어들을 떠올릴 것이다. 이 단어들은 부정적인 것이다. 누구도 이 단어를 보면서 정상적인 상태를 표현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무엇인가가 있다는 말이다. 왜곡되었다는 것은 왜곡되지 않은 것과 비교해야만 바뀔 수 있다. 꺾었다는 것은 꺾지 않은 원래의 상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과 같은 이치다.

마찬가지로 악하다는 것은 악하지 않은 것(우리는 그것을 선(善)이라고 한다)의 존재를 조건으로 한다. 우리는 여기서 심각한 판단을 해야 한다. 어느 것이 원형(原型)인가? 선과 악을 비교한다면 어느 것이 기준이 될까? 신적인 기원(起源)을 따질 필요 없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악은 선이 부패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도둑질은 절도라고 모든 법은 말한다. 이것은 선(善)에 근거해서 만든 법이 아니다. 왜 도둑질은 나쁜가? 도둑질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원형(原型)이다 (Platon의 Idea 개념이 아니다). 인간은 도둑질을 하면 나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모든 악한 것들은 나쁘다는 것을 안다. 그것은 악이 원형이 아니라는 말이다. 선이 원형이라는 사실을 종교가 없는 인간도 안다. 선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왜 인간은 그것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

세계관은 마치 안경과 같이서 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했다(세계관 2편). 그러나 그것이 하나 같이 불량품이라면 그 안경을 통해 보는 세상은 정상적인 것이 아닐 것이다. 그 안경을 통해서 보는 세상과 사람은 왜곡되어 보일 뿐이다.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안경을 쓰고 있어서 자기 것이 불량품인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그 안경을 쓰고 있는 한 인간은 절대로 절대적 선을 찾을 수 없다. 절대적 선에서 벗어나는 것, 기독교는 그것을 '죄'라고 한다. '죄'에 빠진 인간은 절대적 선을 찾을 수 없다. 또한 절대적 선 없이는 올바른 세계관도 없다.(다음 주에 계속)

(한창현 목사)

예비 전도사 은진이

최 지 영 (선교회원회 간사)

다섯 살 난 조카 은진이는 또 흠뻑적이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 도전하는 은진이는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듣고 흠뻑거리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기뻐한 오면 복음을 전합니다.

언제부터 은진이에게 복음을 들려 줬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저 은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였습니다. 은진이는 다 삼각지는 구원이나 복음에 대해 생각 줄 몰랐지만, 다섯 살이 되면서 들었던 십자가 이야기가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창에 찔려 피가 흐르는 고통을 맞보신 예수님. 원래는 은진이가 봐왔어야 할 벌인데 예수님께서 은진이를 정말 사랑하셔서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감사를 느낀 것 같습니다.

지난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은진이는 예수님이 가장 좋은 분이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외할머니와 사람들이 부처님을 믿는 것을 보고는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아빠가 속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부처님은 가짜고 예수님이 진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연히 혼났지요. 그렇지만 그 뒤에도 어른들, 특히 아버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셔서 '엄마 뱃속에 있더라! 그래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딸이지요' 하더라고요."

혼나서 울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 그림을 그렸답니다. 물론 어린 시절에는 구구나 그리기를 좋아하고, 또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 예수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이해할 수 있지요.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리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지요? 은진이는 자기나 그린 그림을 보고 두 눈에 눈물을 가득 메우고 있었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이 가득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은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빠도 구원받고 싶지요?"하고 묻더군요. 아버지의 일그러진 표정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아빠, 심판 때가 되면 하늘에 올라 볼 거예요. 그대 피아려 해도 안 돼요. 이쪽으로 피하면 이쪽으로 떨어지고, 저쪽으로 피하면 저쪽으로 떨어지고 그래요."

은진이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은진이처럼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알게 되기를. 그래서 이만에도 복음을 전했을 때고 훈이 난 것이겠지요. 은진이는 더 커지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는 날까지 변함없이 복음을 바라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여전히 복음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은진이를 보며...



데살로니가후서 3:13

정성진 (청년부)

사도 바울의 1차 편지였던 데살로니가후서에 교인들을 위하여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위기를 느끼게 했다. 이로 인해 교인들 중에 적업을 버리고 무위도식 하는 자들까지 나타나게 되었기에, 바울은 다시 펜을 들어 시급히 이 2차 편지를 씀으로써 그들의 오해를 바로 잡으려고 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3:10)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3:13)라고 권면한다. 그는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위기감 속에서도, 자신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충성하는 이들은 선을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격려하며, 일부 무위도식 하는 자들로 인해 자신이 헛고생을 한다는 생각을 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고 권면하고 있다.

"형제들이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들은 정말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

을 감당해야 할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불신자들의 삶과 가치관들을 엿보는 기회를 자주 갖는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가치관들은 성경에 위배되는 것들이 참으로 많았다. 그렇지만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그것들은 결코 죄로 여겨지지 않으며,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는 것을 보게 된다. 불신자들의 눈으로 볼 때,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 모습은 참 한심하게 담담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나조차도 세상의 문화에 취해서 가끔씩 판단이 흐려질 때면, 내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결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변한다. 세상의 문화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때로는 과학적 진리도 변하지만, 하나님의 뜻(말씀)은 영원불변하다. 그 변하지 않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주님은 결코 낙심케 하지 않으실 줄 확신한다.

주님, 당신의 뜻을 알게 하소서. 당신의 뜻대로 행하게 하소서. 당신을 믿는 그 날까지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않게 하소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께

파란 하늘에 떼를 모으고 풀면서 그려내는 구름의 모양이, 소년들이 얹은 물감 가득 먹은 붓으로 죽죽 그네는 그림판 글씨나 동화책의 아름다운 글씨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동화책에 예쁘게 보일 때마다 또 다시 어린아이기 되는 새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름답기 그지없는 저들의 꽃과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지어내신 하나님께서 친히 건축자 되어 우리의 본향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감사히 듣고 힘이 납니다.

저는 청년2부 회원입니다. 제가 20대에 만난 가장 중요한 다섯 사람을 꼽을 때 목사님께서서는 그 속에 계신답니다. 모태신앙이었던 제게 성경은 가까이 있었지만 늘 피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더욱더 그러하였습니다. 무모하고 성화 속에서의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외화적 상상을 펼쳐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귀한 십자가에 대한 중요하고 참혹한 목사님의 설교를, 저를 매우 특별한 평안으로 안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금요찬양예배 때 '성령님'에 대한 말씀은, 주님께서는 보낸 주신 성령님이 제 안에서 일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였고, 그 믿음을 놀랍게 두겨울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비탄과 투쟁이 줄었고, 참 심할지 모르겠고, 무언가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배후자의 제1의 외적 기준이 '그는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는 자에게서 볼 수 있는, 맛을 수 없는 특별한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자주 쓰시는 표현 중 하나인 '여러분 '너무' 좋지요?'에 대해서, 전에는 "그냥 좋긴한 어떤 안되나? 꼭 '지나치게' 라는 '부정적 의미의 단어'를 적어도 많이 쓰셔야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너무'한 사랑이며, 그 참 놀라운 아니까 놀라운 '너무한' 주님의 은혜는, 나누고 싶은 꼭 나누어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았음'이 미덕인 줄 알고 고만하단 제가 이제는 목사님의 '너무'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찬성합니다.

목사님을 후원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눔과 섬김을 보여주시고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이루어가시는 귀한 신앙의 선행자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머릿돌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목사님의 영육이 건강하길, 하나님의 말씀의 정결한 통로가 되시길, 특히 무릎과 심장이 불뉘런 바 되길 기도합니다.

○○○자매

2001. 9. 28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류보라 (청년부)

사무엘하 15장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위대한 승리자였던 다윗은 알뜰살뜰의 반란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피난을 가게 된다. 이 장면에서 그의 모습은 패배자이며,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비참한 상태이다. 이런 그를 위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온다. 이것은 다윗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고 백성들의 믿음을 모으는 데에도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나도 나를 인도하시라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태를 보시리라"라고 말한(삼하 15:25). 다윗은 인간의 힘으로 상황을 이끌어가는 '역지스러움'을 단호히 거부하고 결과와 어떠한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의연함을 보인다. 정말 어떤 도움이라도 구해야 할 절박스러운 상황에서도 인간적인 도움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승리하리라 확신하는 다윗에게는, 이런 강인한 믿음이 있었다. 이것이 다윗의 진정한 위대함이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로 들어 사용하신 이유일 것이다 생각했다.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이에 따르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내 뜻을 주장하기에 급급하였다. '이렇게 해 주세요, 이것이 필요해요'라고 보겠지만 하는 나의 어린 신앙을 되돌아보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를 위해 더욱 성장해야 함을 느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도 인간적인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 왜 그랬을까? 어쩌면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다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뿐이었고, 오직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기울이며 찬송과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다윗은 연약하였지만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룬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나도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길, 하나님과 단 둘이 가까이 교제할 줄 아는 그런 신실인이 되길 꿈꾼다. 이런 소망을 주시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바란다.

만평

글·그림·김범현



이 글은 저의 허락없이 기재되었습니다.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이해하게 된 길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기재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생명,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가장 지비한 미소를 지닌 주님의 얼굴이 모든 참은이들의 가슴에 가득하게 내리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한준 편집장-

[인물 중심의 교회사 순례] 조나단 에드워즈 뉴잉글랜드의 대각성

에드워즈는 하루 열두 시간을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목회활동을 충실히 하였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는 늘 생각에 잠겨 있었고 기도하는 것 같았다. 그는 언제나 신앙의 부흥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분은 언제나 아시아 217의 말씀을 이루신다. '그 날에 자요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요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다."

이러한 노력의 열매는 놀라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미국 역사에 대각성이라고 불리는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1734년부터 시작되었다. 단지 200가구뿐인 에드워즈의 작은 마을에서 무려 300명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 부흥운동은 뉴잉글랜드의 다른 곳들과 인근 주들에서도 일어났다. 조지 헛필드 등에 의해서 부흥회가 여기저기에서 대단한 열정 속에 열렸고, 부흥운동은 미국의 다른 지역으로 불길처럼 퍼졌다.

이 부흥운동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했고,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게 하였다. 그러나 에드워즈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청교도처럼 철저하게 헌신하면서 살기를 원했다. 그는 신자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원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선조들의 신앙을 너무 쉽게 버린 청교도의 후손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했었다. 그중 안에서 목사들은 언제나 이러한 죄악을 탄탄대로는 설교를 했다. 예레미야에게는 가장 많이 쓰이는 설교의 본문이었다. 그러나 교회마다 교인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 뿐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전국에서 거의 동시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회개하며 예수 믿는 이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교회마다 부흥회에 참석하는 이들이 늘었다. 설교의 내용은 준엄하였다. 목사들은 사람들이 조상들의 청교도 신앙을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 속에 빠져있음을 하나님께서 이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외쳤다. 또한 인간은 이교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것을 경고했다. 그리고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그로부터 나오는 완전한 은총을 전했다. 에드워즈는 그 부흥운동의 지도자였다.

개신교의 신앙원리는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고 생명을 주고 의미를 주는 이였기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있을 수 없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다시 두 가지의 원리를 제공한다. 진리의 기준과 구원의 방법을 성경에서만 찾는다라는 것이 하나요, 다른 하나는 그것이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교회사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신앙적인 대각성이 일어나는 곳에는 언제나 이러한 혁명적인 신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의 힘이 아무리 대단하도 해도 그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개신교의 신앙원리는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인 구원과 함께 능력을 공급하여 왔다. (김기홍의 '천국의 기둥'에서)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서성경' 재매를 소개합니다

부산에서 교회에 잠시 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 사시는 이진규 집사님이 아침마다 직장까지 차를 태워 주시면 서 충헌교회 출석을 권유하시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의 큰 규모에 어리둥절해서 해매곤 했는데 그때마다 성도들의 친절한 안내를 받았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교회에 나오니 몸이 피곤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예수님은 살아 계신 분인가 생각해 보곤 하는데, 새가족부 집회를 통해서 살아 계신 예수님을 만기기를 원합니다.

'안은경' 재매를 소개합니다

꽃집을 경영 중이며 충헌교회에는 일본 유학 중인 동생의 권유와 청년2부 성도의 권도로 나왔습니다. 현재 재매들과 새가족부 담임이신 권사님이 진실한 마음으로 쟁겨 주셔서 교회에 대한 인상이 좋았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 이시면서 '참 하나님' 이시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말씀을 점점 깨닫게 되고, 매일의 생활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놀라웁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곁에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가족부에서의 성경 빨리 찾기 대회와, 새 신자들을 따뜻하게 대해 주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한숙경 (새가족부 통신원)

+ 양호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내가 머물러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방 안에서 나온 송자같이 뛰라라"(말라기 4:2)

6교구 흥동선 성도(남57세) 목 부위가 타서, 갑상선암 방사선 치료를 당분간 중단했습니다. 믿음으로 낙담치 말 것과의 타격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7교구 원경희 집사(여52세) 난소암으로 10여 차례의 항암 치료를 시도했으나 효과가 없었고, 현재 육장까지 나서 매우 힘겹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평안하며 병이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3교구 민원희 타코관사(여74세) 교통사고로 오른쪽 발의 인대가 늘어났으나 간호할 사람도 없습니다. 등은 손길로 위로받고 부상에서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박관희 집사(남49세) 교통사고로 목 부위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빨리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 믿음의 진솔

주의 피로 이론 샘플

김영은 (집사, 4교구, 가브리엘 찬양대)



"주의 피로 이론 샘플 참 고맙습니다. 구원하는 크리스 능력 다 찬송할지라"

어느 날 잠결에 저절로 내 입에서 나왔던 찬송가 200장의 가사이다. 꿈에서 부르지도 않았고 전날 불렀던 찬송도 아닌데 잠에서 깨자마자 저절로 흥얼거리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이 찬송이 떠나지 않았다.

헤아 바뀔 때마다, 환경이 변할 때마다 좋아하는 찬송이 바뀌긴 했지만, 이 특별한 계기로 찾아온 이 찬송은 올 한 해 나의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특히 2월 가사는 나에게 힘을 주는 내용이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나는 찬송가 중에 특별한 속죄 찬송을 많이 부른다. 이유는 가사에 나오는 예수의 보혈이 늘 나를 깨끗하게 하는 느낌이 들고 그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입술에서 세상 노래가 아닌 찬송이 나오도록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저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할 일이 찬양하는 일이나 이 땅에서 열심히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불러야겠다. 혹시 가진 목소리가 나쁘더라도, 노래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찬양하는 자세가 되어있다면 그 찬양은 은혜로운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일찍이 찬양대로 봉사케 하시어 많은 찬양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할지 원한다.

다음주 일송

417장 큰 죄에 빠진 나를

래리나 네일리 모리스(L. N. Morris, 1862~1929) 여사가 "자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을 깨달아"(엡 3:18)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1912년에 작시 작곡한 것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 예수는 점점 더 김이롭다는 내용의 아름다운 찬송가다. 원문을 보면

1절 나 죄에 빠진 줄 알았을 때 날 찾아오신 예수와 사랑, 주의 우리(fold)로 날 다시 인도하시니 주의 놀라운 은혜, 비단보다 값고 하느보다 넓은 자비의 넓이와 깊이 영원한 내 노래 제목이로다.

후렴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김이롭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김이롭네. 세월이 흐를수록 예수의 사랑 더 풍부하고, 찬탄하며 김이롭네.

2절 오래 전 옛 유대 땅에서 인생 길 걸으셨던 주, 구원의 은혜 알고자 사람이 모여들었네. 주는 상한 심령 고쳐주시고 노년 자 보게 하셨네. 주의 크신 마음은 나까지도 사랑으로 동정하시네.

3절 우리 위해 온실의 이름 당하시라 불평 없는 슬픔으로 신자의 고통 주가 담당하신 것 놀라운 사랑이로. 천지가 구세주 찬양으로 매미치고 또 치기까지 구속된 성도들과 우리의 소리 영광 중에 드높이게 하소서.

이 찬송은 주의 사랑과 은혜가 크신데 감탄하여 부르는 것으로 3/4박자 부분은 가사를 김이 새겨 부르드는데, 그리고 4/4박자 부분(후렴)은 기쁨과 감사로 힘차면서도 포근하게 불러야 한다.

(찬양원형회)

나는 학동초등학교에 다니다

라미애 (유년부 5학년1반)



사진 첫번째줄 왼쪽에서 두번째가 라미애

내가 여기로 이사왔을 때 친구들이 없고 놀지도 못해서 나는 섭섭했다. 그리고 며칠 지나 어떤 선생님이(교회 선생님이었는데) 나를 보고 "교회 다녀요?"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다니지 않는다고 했더니 교회를 나오라고 했다. 정말 고마운 분이다.

교회에 있는 5과1반 선생님을 만나서 나는 친구를 많이 사귀게 된 거다.

바른 기독교

노영한 (집사, 소년부부장)

어느 사람이 길을 가다 발을 헛디뎈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되었다. 그 사람은 살라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때 붙자 한 사람이 지나가다 그 사람을 보고는 "인생은 고행이고, 낙하고도 고행 그곳에 있어도 고행이니 그냥 그곳에 있으시오"하며 지나갔다. 이번에는 한 유생이 지나가다 그 사람을 보고는 "여보, 군자는 대로행이. 대로로 가지 않으니 웅덩이에 빠지게 않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고치기 위해 시청 당국에 가서 웅덩이를 메우고 제도를 고치도록 할 테니, 그 동안 그곳에서 좀 기다려달라고 참고 계시오"하며 지나갔다. 이번에는 크리스천이 지나가다 이를 보고는 "얼마나 웅덩이에서 고행이 많으셨으 빨리 나오세요"하며 친절하게 그를 웅덩이에서 구해 주었다. 그리고 그에게 다정한 말로 "종종 빠질 때마다 나에게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시면 급히 달려와 구해 주리다. 내 좋은 일을 할 것이 마땅치 않아 하나님께 미안하던 참에 아주 잘 되었소"하며 자기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고 떠났다. 누가 만든 이야기인지, 각 종교를 제대로 표현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크리스천을 슬프게 하는 이야기이다. "역시 크리스천은 달라. 신한 일을 한단 말이야"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서 자라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독교의 옷을 입은 유생들을 많이 보게 된다. 적선지가 필유여경(積善之家必餘餘慶)이 몸에 배어 선한 일을 쌓아야 직성이 풀리는 민족이다. 또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우리의 이웃이 누구이며 이웃사랑이 무엇인가 보다는 사마리아인의 적선에 감명을 받는다. 유교가 교조적이고 율법적이기 때문에 신앙보다는 규약이 우리 입맛에 더욱 맞는 다.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저주하는 죄에 대한 갈갈같은 예수님보다는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는 무골호인(無骨好人) 대자대비(大慈大悲)하신 예수님이기를 바란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인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이며 내 부모라"라는 불효자이기보다는 나와 유전 형질을 더 많이 소유한 것이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된다.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서 생명을 사랑하는 천국일꾼으로 양성하겠다고 하면서도, 선과 악을 구별하는데 익숙한 율법적인 인간을 양성하지 않는가 반성한다. 우리 나라는 서구 기독교가 꽃피 자랑스런 나라라고도 생각하지만 유교 불교도 산악 종교(천도교, 중산교, 한일교, 대순진리회 등)와 만나는 만능의 광장이 되고 있다. 혼합된 기독교로 전락하는데 아니면 복음을 제대로 사수하는데 하는 사명이 오히려 교회를 주저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비록 우리의 문화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강단에서 우리에게 호소한다.

소년부는 10월 28일 새 친구 초청 전도잔치를 연다. 율법적인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천국 일꾼으로 양성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으며 교사들은 오늘도 기도한다. 이들이 13억 중국과 10억 인도에 혼합된 기독교가 아닌, 진리의 복음을 전할 21세기 천국일꾼들이기 때문이다.

Catechism

5.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2)과 창조에 관하여

(1) 예정론의 목적

하나님께서서는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셨고 동시에 그 방법으로 예정하셨습니다.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자로 삼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살피고 주십니다. 택함 받은 자들에 대하여는, 때로 지체를 배울지도 하지만 지체를 배울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정과 목적은 구원을 얻은 자들이 영생에 대해 확신을 가지도록 하는 것일지도,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자손은 낳아져서 겉소녀까지도 하게 위함입니다.

물음 1. 택함 받은 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택함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골 1:15)

물음 2. 택하신 자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서는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 ①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②진리를 믿게 하시며, 또한 이를 위하여 ③복음으로 불리우십니다. (살후 2:13-14)

물음 3. 하나님께서 예정의 방법을 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져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도록 하게 위함입니다. (골 1:6)

(2) 세계와 인간 창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관동과 지혜와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을 지으신 후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성과 의와 거룩함을 부여하셨습니다.

물음 1.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요 1:1-3; 히 1:3)

물음 2.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창조되었나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 1:26-27)

물음 3. 하나님의 성령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유언적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뜻하는 것이며 (골 3:10),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말하고 있는 것일지도 (골 4:24).

물음 4.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게 위함입니다. (사 43:7)

(오윤진 전도사·고동부 부지)

성경의 생

요엘(Noel)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호와와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요엘(Noel)은 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11세에 나타난 것 외에는 잘 알려진 것이 없는 선지자이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다음의 구절은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가운데 여호와와 그의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욥 28:32). 그의 예언은 실제로 성취되었고 베드로 사도도 의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었습니다(행 2:16-21). 이제 이 요엘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을 읽으시기 전에 먼저 그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북 이스라엘에서 엘리사가 활동하던 때와 동일한 시기에, 남유다에서 오바다와 함께 예언활동을 했습니다(오바다는 예레미야를 향해 예언). 그 당시의 북 이스라엘 왕은 예후와 유사하듯, 남유다의 왕은 요아시였습니다. 이 시대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배경은 열왕기하 11장-12장, 그리고 역대하 23장-24장을 통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요아시와 그의 통치에 대해서 연구하시면 요엘이 활동하던 시기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으로써 요엘이 활동하던 시절의 유다는 매우기 때와 심한 가뭄으로 재난과 고통 가운데 놓였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입니다.

먼저 요엘서를 읽으실 때에는 '여호와와 날'이라는 단어에 관심을 가지고 읽으셔야 합니다. 요엘서에서 '여호와와 날'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것은 요엘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호와와 날'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읽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사용된 구절은 1:5; 2:1,2,10,11,30,31; 3:14-16). '여호와와 날'은 구약성경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는데(사 13:6,9; 겔 3:3,5; 사 3:2,5; 5:18,20; 욥 1:5; 1:7,14, 말 4:5), 이것은 최종적으로는 적그리스도의 날 혹은 사탄의 날에 대조를 이루며 대한관과 함께 지어지는 최후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마 11:24, 고전 5:5; 고 1:14, 살전 5:2, 살후 2:2, 벰후 3:10). 때때로 '이 날'로도 표현되는 '여호와와 날'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중대한 개입'을 하셨음을 언급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주에 계속)

(김동환 목사·출판자 지도)

